

손톱 먹은 들쥐

글 | 차진나

그림 | 박수진

글 | 차진나

그림 | 박수진

편집 | 김은파, 이수인

편집 디자인 | 이해명

목소리 | 황창영





옛날 깊고 깊은 산속 마을에
게으른 꿈달이가 살았어요.
꿈달이에게는 손톱을 깎고서
마당에 던져 버리는 못된 버릇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커다란 들쥐 한 마리가
마당을 지나가다가 콩달이
손톱을 발견했어요. 들쥐는
마당에 버려진 콩달이 손톱을
오독오독 먹어 버렸습니다.





콩달이가 나무를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콩달이가 말했어요.

“나는 콩달이인데, 너는
누구냐?” 그러자 가짜 콩달이가
말했어요.

“내가 콩달이인데, 너는
누구냐?”



시끄러운 소리에 가족들이 모두 뛰어 나왔어요.
“에구머니나, 꿈달이가 두 명이야!”
어머니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진짜 꿈달이를 찾기 위해 아버지가 질문을 했어요.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무어냐?”

그러자 두 꿈달이가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눈이 초롱초롱하여 초롱이요!”



이번엔 어머니가 질문을 했어요.

“우리 집 부엌에 있는 숟가락이 몇 개냐?”

“여덟 개입니다.” 가짜 콩달이가 대답했어요.



진짜 꿈달이는 우물쭈물하다가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이쪽이 가짜로구나! 썩 나가거라!”

진짜 꿈달이는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콩달이가 엉엉 울고 있으니 지나가던 스님이 이를 불쌍하게 여겨
콩달이에게 물었어요.

“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슬프게 울고 있소?”

콩달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스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스님은 꿈달이에게 고양이 한 마리를 주며 말했어요.
“들쥐가 손톱을 먹고 사람으로 변신을 한 것이요.
집에 가서 이 고양이를 풀어놓으시오.”



콩달이가 고양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가짜 콩달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이쿠, 고양이! 고양이다!”

그리고 들쥐로 변해 쥐구멍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아이고, 네가 진짜 꿈달이로구나!”

어머니 아버지는 꿈달이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꿈달이는 그 후로 손톱을 아무 데나 버리지 않았답니다.

“손톱 먹은 들쥐”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2019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